

2008 녹색연합 연례보고서



2008 녹색연합 연례보고서

4대강령

전 문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는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생명운동의 깃발을 들고 뭉쳤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이다.

녹색은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순환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숲과 나무, 하늘과 바다, 물과 갯벌, 우주에 깃든 존재는 우리와 한 생명이다.

우리는 삶과 삶을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시민참여와 생활자치를 통해 녹색정치의 기틀을 만든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세상을 만들고자 우리의 지혜와 땀을 모은다.

우리는 사회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한다.

또한 모든 생명을 섬기며 평화의 뜻을 나누며,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다.

강령 제정 2000. 04. 01

강령 개정 2001. 06. 23

생명존중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생명체가 인간과 시장중심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며,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육체, 정신, 영의 건강을 되찾는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오래된 미래로 존중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우리는 절제된 녹색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험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증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빈민, 여성, 지역 주민 등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차 례

■ 펴내며 - 박영신 상임대표	6
■ 2008년을 돌아보며 - 최승국 사무처장	7
■ 활동내역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14
● 군기지 환경 문제	16
● 백두대간 보전활동	20
● 생태탐방로	24
● 야생동물 보호활동	28
● 비무장지대 보전활동	32
● 연안·해양 보전활동	34
● 에너지·기후변화	36
● 시민참여	40

2008 녹색연합 연례보고서

■ 지역조직	44
■ 전문기구	46
■ 회원모임 소개	48
■ 녹색 만원계	50
■ 활동가 소개	52
■ 녹색연합이 걸어온 길	54
■ 2008년 발간 보고서 목록	55

함께 녹색 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녹색 누리를 꿈꾸는 녹색연합의 역사는 올해로 18년이 됩니다.

그 동안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의 생체기를 보듬고

남북접경지역과 동서남해안의 개발현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환경사각지대, 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도 살폈습니다.

도로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밝혀 국민 혈세를 소중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숨 쉴 수 있도록 두 발로 아픔과 기쁨의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녹색연합은 햇빛 세상을 녹색 누리로 바꾸고자 합니다.

녹색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함께 녹색 누리를 나누고자 **2008 녹색연합 연례보고서**를 펴냅니다.

녹색희망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2008년에 출범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돈벌이가 되는 일에만 눈을 돌리는 정부가 아닌지,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우선하는 정부가 아닌지 우리 녹색연합은 따져 묻습니다.

가난과 환경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민생경제가 파탄나면 공동체를 꿈꾸는 살림살이도 무너집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엄중한 시대의 저항입니다.

마땅한 그들의 권리입니다.

녹색연합은 가진 자들의 횡포에 도전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녹색연합이 녹색 누리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8 녹색연합 연례보고서는

녹색경제, 녹색정치, 녹색공동체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시민 없는 운동, 그들만의 전쟁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민운동은, 녹색연합은 몇 명 활동가들만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녹색 누리는 활동가의 노력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녹색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 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녹색 누리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참여하고 함께 합시다.

녹색연합을 녹색연합답게 만들 그 길에 녹색 동지들이 함께 합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녹색 벗들의 일은 더 큰 빛을 냅니다.

서로 지켜주고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 ! 못 생명의 몸부림이여, 촛불이여, 희망이여 !



최 승 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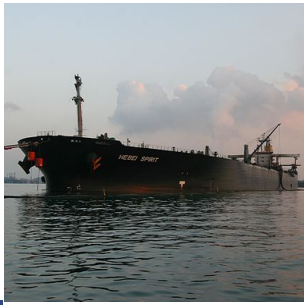
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했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음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걸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 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못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에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설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에게는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했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못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칙흑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을



이렇게



마주할 줄



몰랐다 ...



지난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갯바람 솔솔 날리며, 아름다운 일몰 자랑하던 태안 앞바다에 폭포수 같은 기름을 쏟아냈다.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발로 뛰며 방제작업을 벌이고, 삼성중공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토론회를 열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했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기름유출 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미술 프리즘과 함께 '기름이 그린 그림전' 전시회도 개최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대응활동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한 활동



그대로 흐르게 하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생명의 젖줄인 강을 경제회생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녹색연합은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한강하구까지 녹색순례를 나섰고,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과 함께 대운하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쉽 없는 촛불행진이 대운하 추진을 멎게 했지만, 이내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꾼 채 생명의 강에 포크레인 을 들이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민행동





녹색연합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미국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검역주권 회복과 밥상의 안녕이 더 큰 울림이 되도록
회원들의 힘을 모아 신문지면에 녹색연합의 목소리를 실었으며,
스티커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광장에서 농성도 벌였다.



지속가능한 교통



녹색연합은 정부의 도로건설 위주의 교통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평행하게 건설하는 중복도로 문제, 지역발전으로 왜곡되는 무분별한 도로 과잉투자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활동,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있어 도로건설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 도로건설 때 발생하는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도로건설 제도개선 활동, 더 이상 쓰지 않는 도로를 자연과 지역공동체로 되돌리는 폐도로 생태복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도로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축 회복

백두대간은 포장도로 61개, 비포장도로 21개를 포함하여 모두 82개 도로(임도 제외, 2008년 12월 기준)로 8.3km마다 단절되어 있다. 백두대간 단절도로 가운데는 국립공원 구간이 19개소이며, 도립공원도 1개소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생태계가 연결된 곳도 6개소나 된다. 최근 환경파괴를 우려해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계보호구역에 터널화하는 추세지만, 도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시령, 조침령, 이화령 같은 구간은 신설노선과 도로확장을 위해 고개 아래 터널을 뚫었지만, 이용되지 않는 기존 도로는 관리부실로 방치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을 단절하는 도로, 쓰지 않는 도로의 생태복원을 위해 올해 집중해 활동했다. 도로 생태복원을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원방안을 제시하며, <도로의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폐도에 관한 생태복원 제도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고속도로 폐도 중 생태복원이나 활용이 가능한 구간을 제안하여 도로의 생태복원에 대한 정책제안과 복원사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했다.

2. 2009년 도로 예산 과다, '고탄소 녹색성장'

올해 10월, 국토해양부는 도로부문에서 내년 도로예산으로 7조 9,540억 원을 편성했다. 나아가 11월에는 도로건설이 선도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10월보다 무려 18.9%가 증가된 총 9조 3,966억 원을 편성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더니 2009년 정부가 책정한 도로예산을 보니 허울뿐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드러났다.

2007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와 철도 등 총 16개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고작 세 구간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이 예산낭비 구간으로 지목한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아직 기본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2009년 착수를 전제로 예산을 1,203억 원을 책정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도로분야의 예산을 검토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도로 중심 정책을 지속가능한 수송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민자도로의 예산낭비 분석사례를 조사하고,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올바른 교통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3. 타당성 없는 춘천~양양고속도로

지난해 건설교통부는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의 타당성 검토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발주해 결과를 넘겨받았다.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의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동홍천 구간은 이미 시공중이라 중지할 수 없어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투입을 연기하고, 동홍천~양양구간은 2019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사실상 유보하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춘천~양양고속도로는 계획을 연기하고, 철도를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09년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에 대한 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펼쳤고, 백두대간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기지 환경문제



녹색연합은 지난 13년 동안 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실태를 알리고,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주요활동으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기지 환경관리종합계획수립 촉구, 해외 주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보존과 환경권 인식증진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녹색연합은 군사시설에 의한 환경파괴 현장을 감시하고, 올바른 제도 개선을 이루는 한편, 환경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한 안보라는 생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할 것이다.

1. 23개 미군기지 반환, 오염정화는 우리가?

지난해까지 반환받은 23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과정이 시작됐다. 녹색연합은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올바른 정화 기준과 방법을 위한 사회 합의를 이끌어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본래 미군이 오염을 정화하고 반환시켜야 하지만 한-미간 지속 협상으로 한국 정부가 오염정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추산했던 23개 미군기지 정화비용이 무려 3배나 뛰어 3,200억 원에 가까워 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반환될 40여개 기지의 오염 정화는 반드시 미군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NGO는 올해 4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한일 미군기지 공동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 69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 주민, '시끄러워 못살겠다'

전국의 군용비행장,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주민 약 20만 명 이상이 현재 소음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45개 군용 비행장과 1,453개 군용 사격장이 있다. 2007년 국방부 조사 결과, 23개 군용 비행장과 17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는 약 69만 명이고, 가구 수는 24만 채로 밝혀졌다. 군 소음 피해 영향 범위는 무려 여의도 면적의 193배에 달한다. 소음 피해에 노출된 학교는 102개교, 병원은 78개소, 도서관 5개소, 복지시설은 463개소이다. 녹색연합은 올해 평택, 군산, 대구에서 군 소음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에서 이정희 의원실과 군소음특별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약 20만 명 이상다. 또한 전국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모인 '군 소음 피해지역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5~6군데 군용비행장 주변에 상시 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나마 소음 측정기가 부적절한 곳에 위치해 소음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군용 비행장 소음 영향 현황도

〈육해공군 비행장 소음영향지역 내 가옥수, 주민수 및 학교 분포도〉

2007년 12월

 육군 비행장
 해군 비행장
 공군 비행장

위 가옥수
 인 구
 치 학 교



출처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녹색연합 2008



백두대간 보전활동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약1,400킬로미터의 산줄기이다. 녹색연합은 1996년 백두대간 환경대답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잊혀진 백두대간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같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전이 제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위협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생태복원하기 위한 생태계 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 가동률 4.04%, 무용지물 양수발전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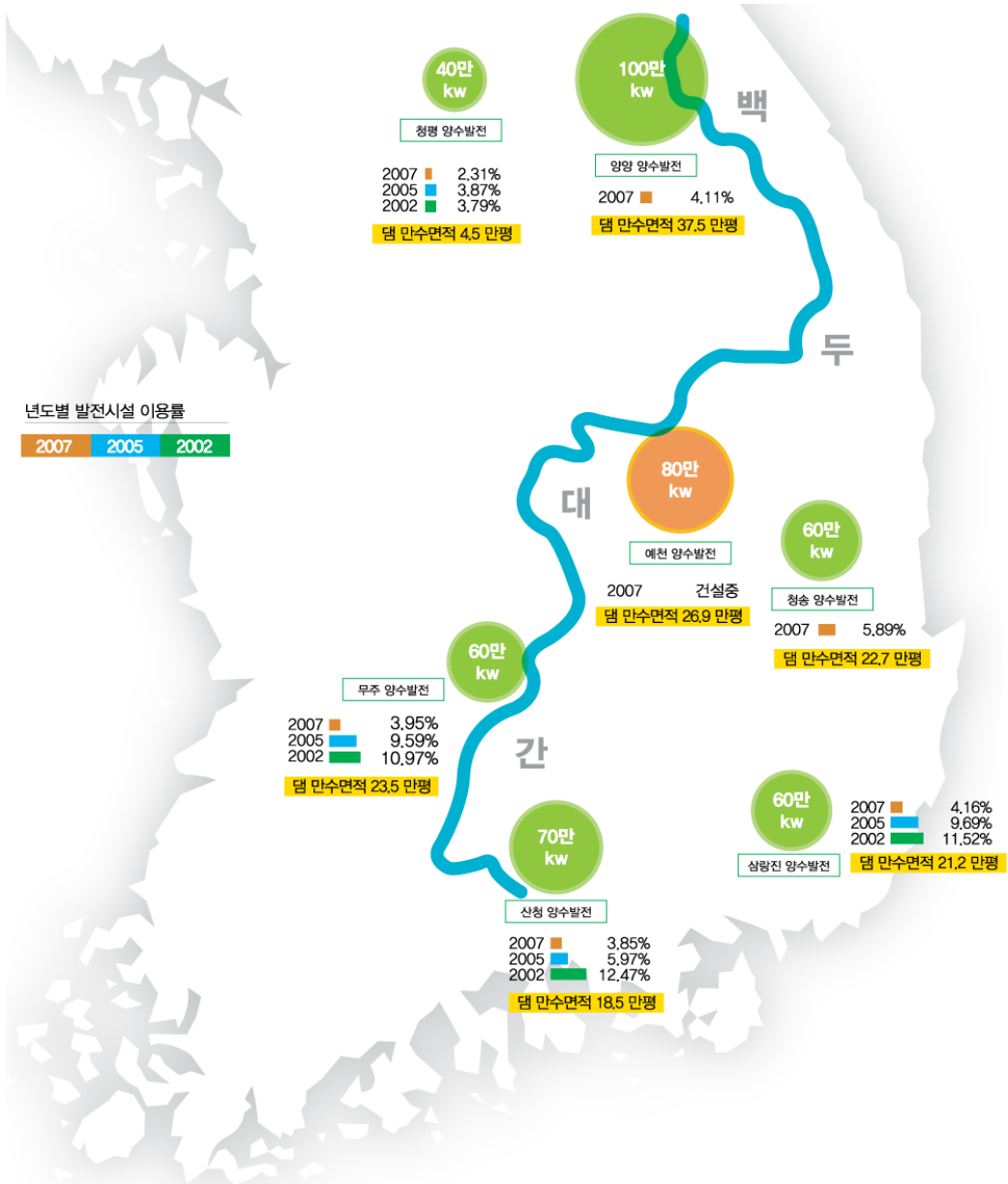
올해 녹색연합은 경제성이 낮아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계속 건설하여 백두대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양수발전댐 운영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2007년 기준 평균 이용률 4.04%로 아주 낮은 가동률인데도 아직 경상북도 예천에는 양수발전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남아도는 심야전력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심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심야 전기가 부족한 상태이다. 곧, 양수발전댐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2000년 뒤로 양수발전댐 공사 4건이 진행되어 건설비로만 국민 세금 약 2조 원이 낭비되었다. 세금 낭비뿐 아니라 백두대간의 훼손도 큰 문제다. 양수발전은 두 댐의 낙차가 클수록 발전효율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상부댐을 산 정상부에 세운다. 이로 인한 지형변화와 생태훼손은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곱 지역 양수발전댐의 수몰에 의

한 훼손면적은 약 155만 평으로, 이는 축구장 면적의 717배에 해당한다. 녹색연합은 수개월 동안의 현장조사를 통해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그로 인한 대형 공사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전국 양수발전 분포 및 운영 현황

2008년 4월



출처 녹색연합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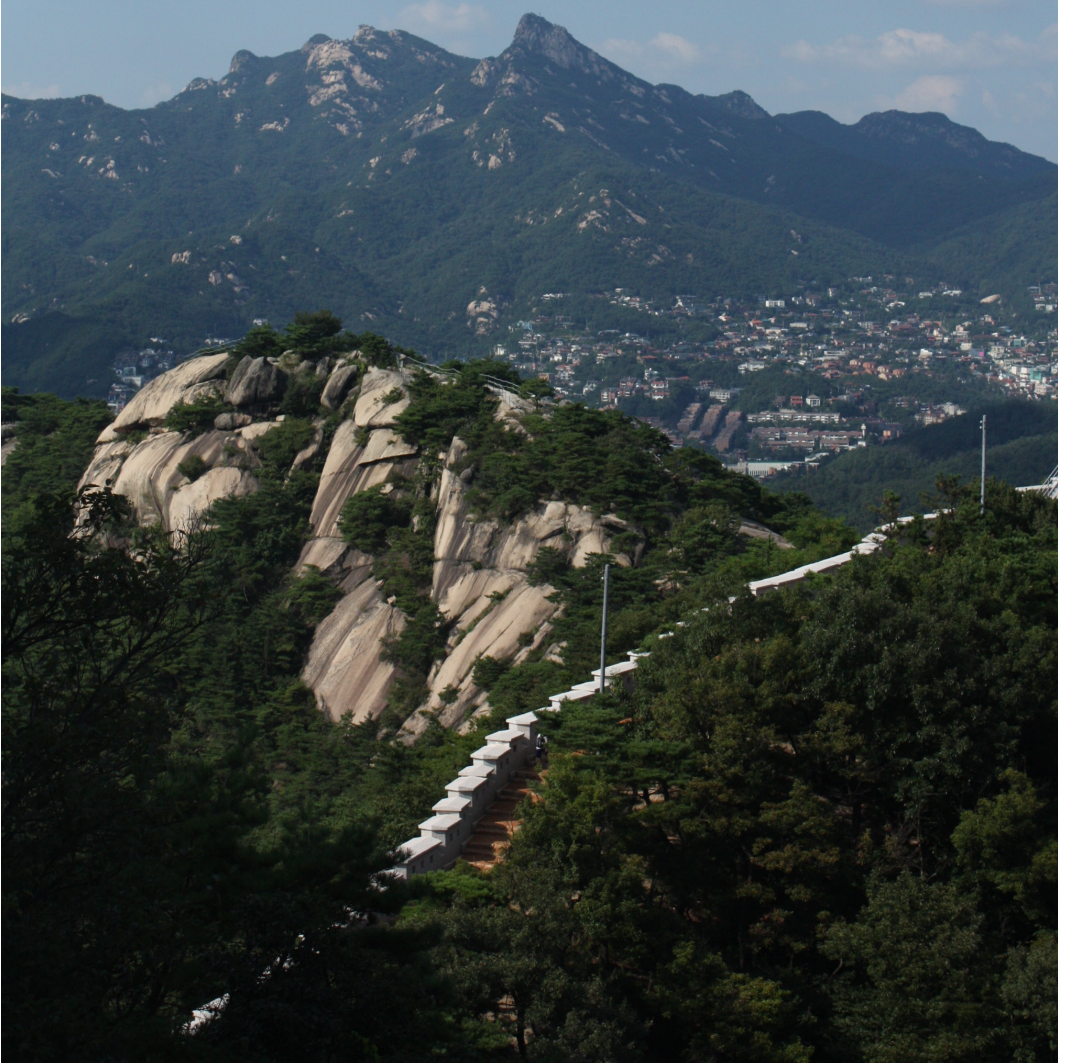


2.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피할 수 없는 과제

2008년 백두대간 생태복원 활동은 지난해 실시한 훼손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관령 목장과 같이 국유림을 대부분하여 조성한 목초지 현황 조사, 자병산 석회석 광산 복원 활동을 진행했다. 백두대간 내 목초지 조성과 자병산과 같은 무부별한 산림자원 개발은 백두대간을 크게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다. 앞으로 녹색연합은 부실 초지 관리, 원래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초지의 반환 요구를 통해 생태 복원의 타당성을 담은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을 2009년에도 이어가며 자병산에 올바른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 탐방로



녹색연합은 천천히 걸으며 자연 탐방을 할 수 있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과 서울 성곽 순례길을 발굴했다. 이는 종주 중심 산행 문화를 바꾸어 산에 가해지는 생태부하를 덜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 좋아 산을 찾지만 기존의 길을 따라나서는 종주산행은 지력을 약화시키고, 토양을 유실시켜 나무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등 생태훼손의 이유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정상으로 올려 보내기 위해 백두대간 곳곳에 더 많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생태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울진숲길, 서울성곽 순례길 발굴은 전국의 산림훼손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생태적 탐방문화 확산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1.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걷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2005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왕피천이 있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우수한 생태계와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에 전국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금강소나무 숲이 있다. 금강소나무는 결이 곧고 단단하여 예로부터 궁궐을 짓는 데 주로 쓰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왕명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남부지방산림청과 녹색연합은 울진 지역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발굴·복원·보전하고, 정상 정복과 종주 중심 산행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생태·역사·문화 중심의 걷기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문화 탐방길 조성을 시작했다. 올해는 노선과 거점,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2009년부터는 더 자세하고 체계 있는 설계와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그 곳에 터 잡고 사는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길인만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거대자본에 의한 관광산업이 아닌 작고 낮고 느리지만 울진의 자연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주관기관, 지자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울진 '금강소나무림 지역 숲길 조성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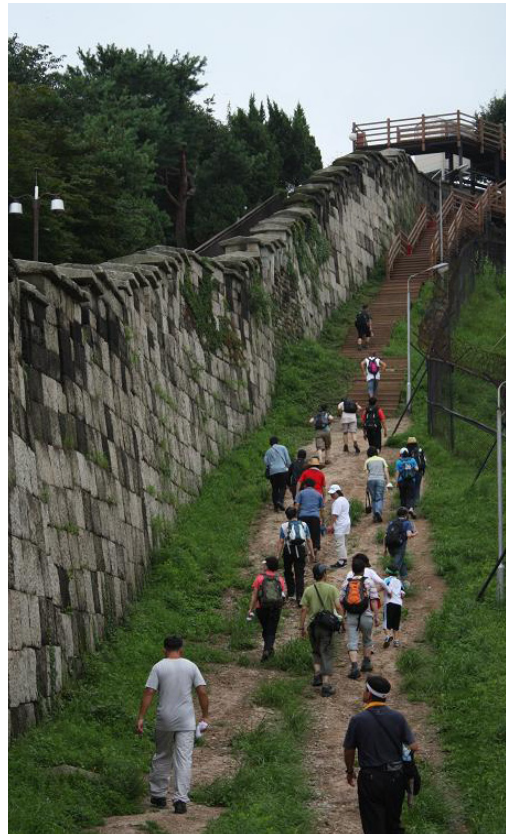




2. 서울성곽 순례길,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걷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80%가 도시에 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을 찾아 여가 활동을 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아 북한산, 관악산 같은 몇몇 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수직 등산로는 날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자연이 생태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용범위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대안에서 나온 것이 서울성곽 순례길이다.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이어지는 18.2km 서울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생태축의 가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이다.

녹색연합은 올해 서울성곽을 따라 탐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조사했으며 역사·문화·생태 자원들을 엮어 정리했다. 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의견을 나누고 서울성곽 순례길의 취지를 알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굳이 힘들게 산 정상을 오르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쉽고, 즐겁고, 편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기존의 수직 등산에서 맞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길로서의 서울성곽 순례길이 걷고 싶은 서울,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걷는 문화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걷고 싶은 서울,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걷기, 서울 성곽 순례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전체 길이 약 23km

역사·문화·생태를 느낄 수 있는 서울성곽 순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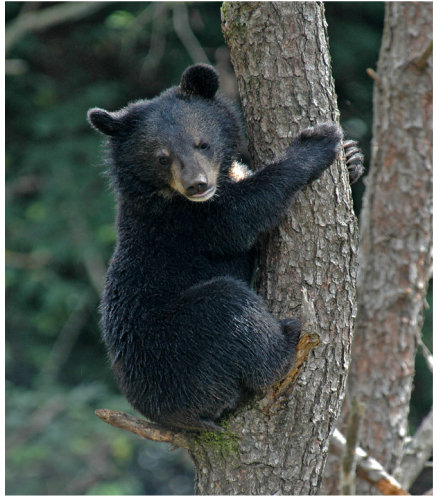
야생동물 보호활동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연안·해양의 3대 생태축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그 서식지의 위협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상업적 이용에 비판적인 정책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6년 야생상태로는 거의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반달가슴곰의 생존 흔적이 지리산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녹색연합의 야생동물보호 운동은 지난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의 확산과 안정된 서식지 확보, 이를 통한 생태계 회복 중심의 활동으로 야생동물 보호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멸종위기 육상포유류를 대표하는 산양을 보호하기 위한 서식지 조사활동, 서북단 끝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위한 인식증진 프로그램,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1,400여 마리의 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겨울철 밀렵방지 캠페인은 녹색연합 야생동물보호활동을 대표하는 활동이다.

1. 응답 위해 국내에서 1,374마리 곰 사육, 환경부는 곰사육정책을 폐지해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에서 응답 판매를 위해 사육되는 곰의 수는 1,374마리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2003년부터 사육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야생동물보호단체(WSPA)와 함께 우리나라의 곰 사육 정책을 폐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와 응답 대응 한약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곰 사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 현재는 정책반영을 위한 활발한 정책 대안연구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곰 관련 상품 거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국제 연대를 통해 관세청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CITES(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를 위반한 수입 국가들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곰 사육정책 폐지를 위한 대 시민 홍보활동으로 SBS와 함께 곰의 날 콘서트 'We Love Bears'와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의 셀터 광고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육곰 폐지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2. 점박이물범 보호, 백령도 주민이 직접 나선다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II 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 올해 녹색연합은 백령도 지역 안에서 점박이물범에 대한 관심을 청소년에게로 확대했고, 멀리 내다보며 지역 주민이 직접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 보호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캠페인과 같은 대중 홍보활동을 통해 세부 보호활동을 진행했고, 이로써 지역 주민의 지속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보호활동의 주체로서 활발한 역할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백령도 중고생으로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점박이물범에 대한 관찰과 기록, 생태교육을 진행했고,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 보호에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그동안 군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백령도가 점박이물범을 통해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체 개체수 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올해 녹색연합은 지난 2002년~2003년 산양서식지 실태조사와 보호방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한 조사지역의 산양 서식실태 변화상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울진·삼척·봉화 지역 산양서식실태 조사보고서〉에는 지난 조사에서 진행되지 않았거나, 위협요소가 있는 지역의 산양 서식실태 현황을 재조사함으로써 산양 서식범위를 보다 넓게 살피고 객관화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 보호와 그 서식지 보전에 문제가 되는 요인인 밀렵, 송전선로와 도로로 인한 이동통로의 단절, 광산개발과 같은 위협요소를 공론화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3. 한국 산양, 멸종 위기에

남한에서 산양은 1970년대까지 백두대간 강원 내륙과 동부 산악지대, 경북 북부 산악지대에 널리 분포하였으나, 오늘날 한반도 남측에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의 산악 지대에서 서식 흔적이 겨우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남아있는 산양의 개체수는 약 700마리 정도로 추정되지만, 전





4. 야생동물 죽음의 덫, 울무 제거

겨울철 밀렵방지를 위한 캠페인은 녹색연합 야생동물보호활동을 대표하는 활동이다. 올 초 약 2달에 걸쳐 밀렵예방을 위한 활동이 경상북도 울진군, 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외곽 지역으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하동군 목통리 일대와 한북정맥, 설악산 일대를 집중 조사하며 울무 제거 작업을 했다. 특별히 녹색연합과 녹색교육센터가 녹색연합 회원모임 '녹색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지리산 국립공원의 외곽지역인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밀렵도구가 수거되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과 경계지역이면서 야생동물들의 출현이 많은 곳으로 특별히 관리·단속이 필요하다. 반면 강원도 삼척, 경북 울진, 봉화 지역에는 밀렵도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무 6개만을 수거했다. 한편 한북정맥의 자락인 경기 가평 북면, 강원 춘천 서면의 경우, 지역에서는 여전히 생계형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밀렵행위를 주목하고, 주민대상의 교육과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전문 밀렵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보전활동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한국전쟁에 의해 비롯된 냉전의 유산으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되었다. 비무장지대는 파주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동해안까지 248킬로미터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으로 2킬로미터, 남으로 2킬로미터, 폭 4킬로미터의 공간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특이함을 간직한 야생의 터전이다.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민통선은 불법개간과 지자체의 개발계획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의 훼손유형을 조사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1. DMZ 155마일을 걷다

2008년 여름 녹색연합은 3년간의 비무장지대 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MZ 155마일을 걷다 - 2008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에 대한 종합 환경실태보고서로는 처음이다. 녹색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산과 하천, 습지, 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역 같은 중요한 자연환경을 조사 정리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원 민통선 지역의 도로, 산사태, 영농활동, 개발현황 같은 주요한 환경현안들을 조사, 보고했다. 8월에는 이상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고, 현재는 회원들과 시민들이 직접 비무장지대의 생태 가치를 체험하도록 생태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만큼 앞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이 지역의 보전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 서식지 수몰 위기에 몰린 임진강 두루미

두루미는 세계에 28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동식물 1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는 800마리 정도인데, 철원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600여 마리, 연천 민통선

임진강 유역에서 150여 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올 초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해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두루미 서식지 보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한 언론보도 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남댐이 2010년 완공계획이어서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지속해서 임진강 두루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서식지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3. 산림복원, 그리고 민통선 사람들 희망 엮기

녹색연합은 올해로 3년째 민통선 지역의 산림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생태계 조사, 산림훼손지 조사에 이어 올해는 민통선 지역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원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민통선 중동부 지역 산림생태계는 비무장지대 안보다 오히려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방지역의 군사활동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조사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내년부터 민통선 지역의 산림복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복원으로서도 처음으로 녹색연합의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서도 민통선 마을은 빠질 수 없다. 비무장지대를 맞대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할 때, 비무장지대의 보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10월부터 민통선 마을을 방문, 조사하며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함께 이들의 미래를 담은 단행본을 기획하고 있다.



연안·해양 보전활동

연안·해양 보전활동은 1996년 시화호 오염과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시작해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연안과 해양의 생태, 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갯벌운동을 시작으로 하구, 해안림, 해안선, 해양오염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지금껏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 환경올림픽인 ‘람사르 총회’에 참가해 연안매립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제주도 연산호 군락보호, 한강하구 보호활동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이름으로 꾸준히 개발과 훼손 압력을 받고 있는 한강하구는 수도권 습지의 허파이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뛰어난 생태교육장이다.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는 대규모 해양 재난사태에 대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술하게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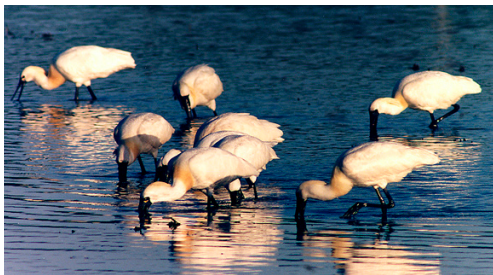


1. 신이 내린 자연형 하구, 한강하구 보호활동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와 같이 남북 접경지역으로 50여 년 동안 사람의 간섭이 없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해마다 철새 108종, 10만 마리 이상이 찾아오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32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이다. 김포대교 남단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송림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60.668km²(약 1,835만평)의 지역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남북협력과 경제개발의 이름으로 골재 채취, 나들섬, 남북연결 도로와 철도, 철조망 철거, 강화조력발전소 같이 숱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생태계의 위기가 찾아왔다. 녹색연합은 올해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과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한강하구 생태지도』를 만들었고, 한강하구 개발문제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한강하구 전략회의’에 참여해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2. 기적의 시화호 형도습지, 골프장으로 다시 죽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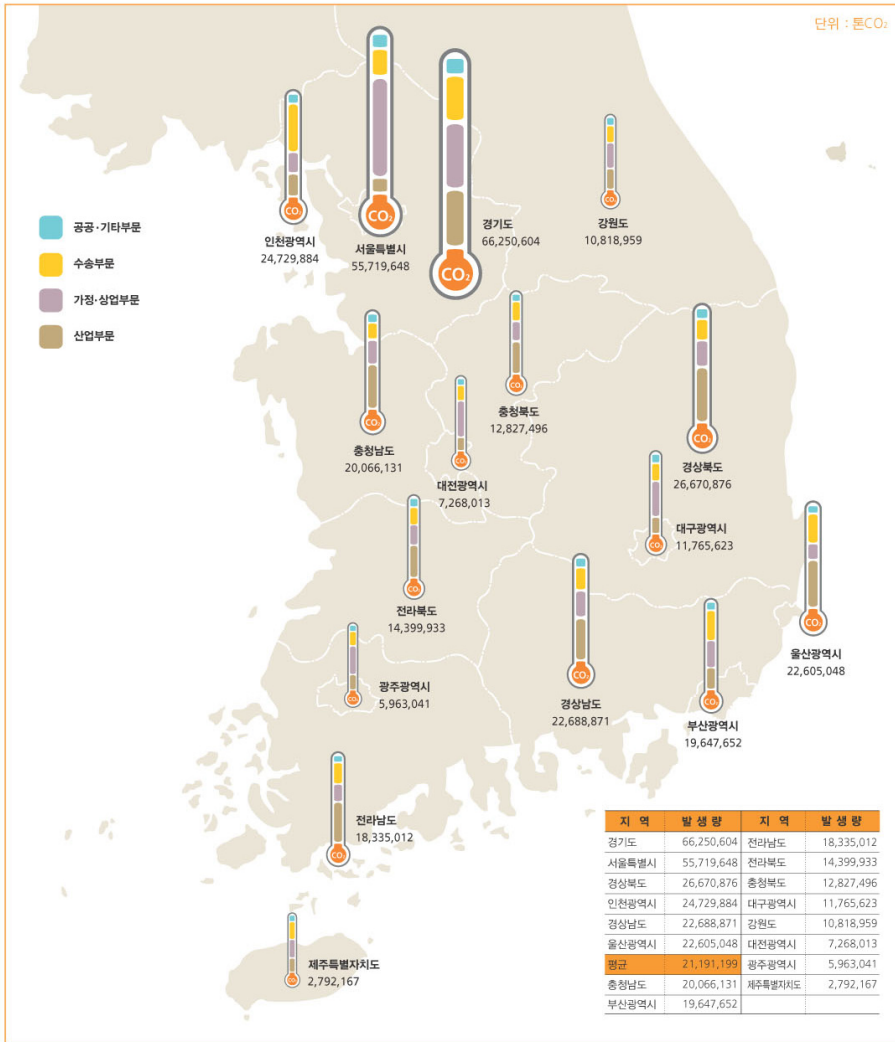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름 없이 방치되던 습지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로 거듭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호 형도습지다. 올해 5월 녹색연합은 현장조사를 통해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삿,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야생동물 7종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경기도 화성 일대의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영성검토서와 사전환경성검토보완서 같은 문헌 검토도 병행했다. 그런데 시화호 형도습지에 송산그린시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연합은 지자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서식지 보호를 위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지속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 녹색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온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강에서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온화의 영향을 받게 될 습지와 하천을 모니터링하고, 조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에너지·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자연의 변화다. 정부는 올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많은 양이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방식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진정한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LOCAL CO2 DIET> 녹색연합 2008

1.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의 현주소

지방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가 직접 발생하는 공간이며, 지역 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토지이용, 운송수단, 건설, 폐기물 관리, 에너지 공급과 관리에 있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변화팀은 3월부터 9월까지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실

태를 파악하고, 동일 기준에 따른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을 찾고자 사업을 진행하였다. 녹색연합이 발간한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기도, 서울, 경상북도, 인천 순으로 밝혀졌다.



2. 지구온난화 해법 찾기,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녹색연합은 서울, 대전, 산청, 광주, 부안 다섯 지역에서 한국만의 지구온난화 대응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2008년 서울에서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대전에서는 자전거 마일리지, 광주에서는 '아파트 전기 20%줄이기 운동'을 여러 지역조직과 함께 진행했다. 또한 산청에서는 민들레학교에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했고, 부안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나무, 바람,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석연료에서 벗어난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를 진행했다.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프로젝트는 시민단체로서 정부의 정책 감시와 동시에 우리가 꿈꾸는 대안을 지역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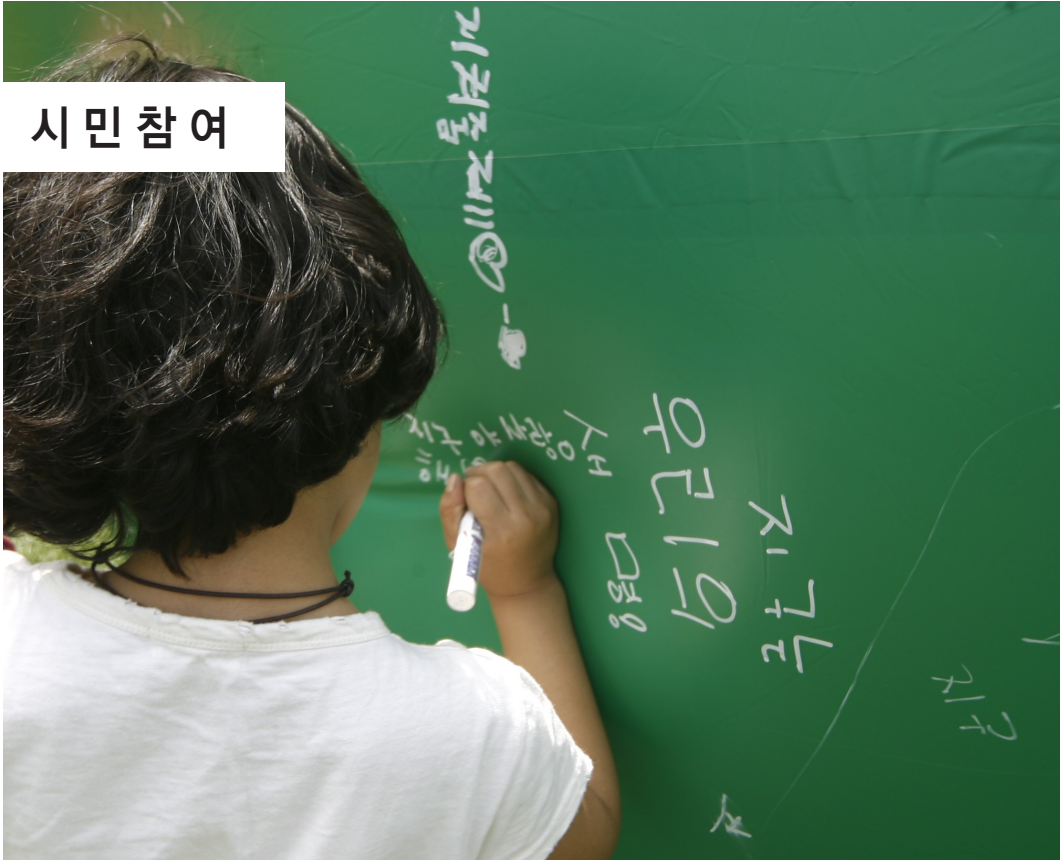


3.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 재생가능에너지로 배운다

올해 녹색연합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가운데 하나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 프로젝트는 전국 5개 대안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에 소형 풍력발전기,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을 학교 교육에 활용토록 하였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구온난화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인 초등학교생들에게 지구온난화와 그에 대한 해법을 좀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 플래시 애니메이션 <물범이의 세계여행>을 제작, 배포했다.



시민 참여



녹색연합은 이웃생명과 다음세대가 더불어 사는 지구를 꿈꾼다. 회원의 후원과 활동에 의해 운영되는 녹색연합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민·회원 모임', '자원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달마다 회원소식지 <녹색희망>을 발송해 녹색연합의 소식을 알리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회원을 발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회원이 녹색의 희망이다

신입회원을 위해 1~2개월에 한 번씩 신입회원 한마당을 열어 녹색연합을 소개하고 다양한 주제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다. 아름다운 한강 선유도공원으로 회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봄 소풍을 다녀왔고 가을 소풍에는 옛 한양의 성곽 길을 따라 걸었다. 또한 달마다 셋째 주 수요일에는 녹색연합이 펴낸 친환경요리책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과 《자연을 담은 사계절 밥상》에 실린 요리를 직접 해먹으며 건강한 먹을거리와 녹색살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밥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12월에는 회원 송년의 밤을 통해 회원들과 만나고 있다.



2. 녹색다운 배달부, 시민·회원 모임과 자원 활동가

녹색연합에는 번역, 서류정리, 현장 활동을 도와주는 자원 활동가가 40여명 활동하고 있으며 달마다 정기모임을 열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녹색연합 회원소식지를 배달하는 ‘녹색희망 배달부’도 20여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어 달마다 소식지 120여부가 자전거를 탄 15명 남짓의 ‘녹색희망 배달부’를 통해 배달된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재생종이로 만들자는 재생종이 캠페인은 7개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되었다. 현재 녹색연합에는 산이 사랑하는 사람들 ‘녹색친구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주부모임 ‘옛사람’, 녹색을 찾아가는 청년모임 ‘씨앗’, 생명과 평화를 향한 성찰의 길 ‘생명운동공부모임’, 야생에 대한 끝없는 탐구 ‘야생동물소모임’, 실천하는 생명사랑 채식모임 ‘베지투스’, 자전거로 실천하는 환경사랑 ‘구름’이라는 시민·회원 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3. 시민들을 위한 녹색강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교류하기 위해 올 한 해 어린이, 청년, 주부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학교가 열렸다. ‘꼬마생태농부학교’, ‘청년생태농부학교’, ‘주부생태살림학교’가 열려 생산지를 방문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시작부터 먹을거리 위험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이에 녹색연합 회원모임인 채식모임(베지투스)과 녹색생활모임(옛사람) 주최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지구인의 밥상’ 강좌를 3주 동안 진행하였다. 2008년 전반에 걸쳐서 백두대간의 훼손현장, 야생동물 흔적 찾기, 갯벌 파괴의 대표 새만금, 대안에너지 생산과 귀농현장, 대안학교, 생태공동체 마을 방문 같은 다양한 생태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씨앗강좌’가 총 10강으로 열렸다. 그리고 온 나라가 경제지상주의에 빠져 돈이 최고라고 외칠 때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경제란 무엇인지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녹색경제 강좌’가 진행되었다.

4. 재생종이 캠페인

2008년 한 해도 재생종이운동은 녹색연합 본부와 출판전문기구 작은것이아름답다가 ‘재생종이티에프팀’을 이루어 활동했다. 4월4일 ‘종이 안 쓰는 날(No Paper Day)’에 국내 최초 재생종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생종이누리방, 그린페이퍼 www.green-paper.org를 열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국정교과서 재생종이출판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거리에서, 다음아고라와 싸이월드에서 서명받기, 초중고학생 100명씩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온라인에서는 1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재생종이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또한 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릴레이캠페인을 펼쳐 재생종이에 대한 교육과 시민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green-paper.org



국정교과서를 재생종이로 만들어 주세요!

녹색연합 지역조직

본부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대표전화 : 02-747-8500



본부녹색연합 회원들과 함께한 봄맞이 나들이

인천녹색연합 www.greenincheon.org
대표전화 : 032-548-6274



송도조류 폐사사건 뒤 회원들이 참여한 새구호활동

대전충남녹색연합 www.greendaejeon.org
대표전화 : 042-253-3241~2



감천 자전거순례

공주녹색연합 www.greengongju.org
대표전화 : 041-858-2637



2008 지구의 날 캠페인

전북녹색연합 www.greenjeonbuk.org
대표전화 : 063-284-0570



2009년 2월 10일 창립축하마당

설악녹색연합 www.sanyang.net
대표전화 : 011-9097-1171



산양의 동무되기

원주녹색연합 www.greenwonju.org
대표전화 : 033-731-7306



강릉 경포호,
남대천 철새 탐조활동

대구경북녹색연합 www.greendaegu.org
대표전화 : 053-964-1753



도심 한일극장 앞
환경보도 설치요구 캠페인

부산녹색연합 www.greenbusan.org
대표전화 : 051-623-9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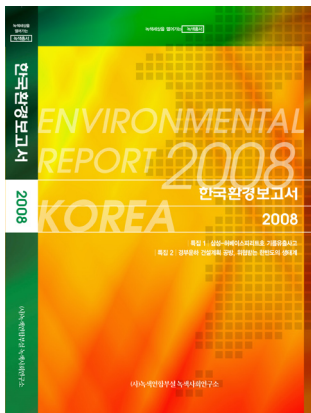
2008 바다정화활동

광주전남녹색연합 www.greengwangju.org
대표전화 : 062-233-6501



녹색어린이 활동

전문기부



■ 사단법인 녹색사회연구소

환경운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1년 창립한 녹색사회연구소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 에너지, 환경기술, 정책, 관광 5개 분야에서 각 분야 연구위원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운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마다 한국환경보고서와 같은 전문 출판물을 펴내고 있다.

- ▶ 생태순환형 도시와 사회 건설에 대한 연구와 자문
-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사회의 비전 제시
- ▶ 생명, 생태, 환경, 평화, 녹색자치 관련 정책 모니터·발굴·제안
- ▶ 녹색연합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 활동
- ▶ 의제21의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및 활동
- ▶ 국내·외 환경운동 지원을 위한 용역 수행
- ▶ 시민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책자 발간



전화 : 02-747-3339 / 전송 : 02-766-4180

www.greenkiss.org / 대표메일 : kiss@greenkorea.org

■ 도서출판 작은것이 아름답다

‘환경’과 ‘생태’라는 말이 낯설던 1996년 6월에 세상에 나온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지금까지 생태환경문화 대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창간 12주년을 맞았던 2008년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기후변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녹색의 그물망’, ‘기분 좋은 녹색삶의 향기’를 전하는 월간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생태환경을 중심에 두고 녹색철학, 녹색문화, 녹색감성, 녹색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나라 안팎의 생태환경 관련 이슈와 정보를 담고, 생태경제와 생태문화를 일구며, 생태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생활인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전화 : 02-744-9074 / 전송 : 02-766-4180

www.jaga.or.kr / 대표메일 : jaga@greenkorea.org



■ 환경소송센터



환경보전과 환경분쟁을 법률문제로 대응하고 풀어가기 위해 출범한 녹색연합 전문기구이다. 분쟁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지원과 소송대리, 공익 기획소송, 민원상담, 환경입법 모니터링, 환경법률학교 개최를 비롯하여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소송을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전화 : 02-747-3753 / 전송 : 02-766-4180

www.greenlaw.or.kr / 대표메일 : kelc@greenkorea.org

■ 녹색교육센터

녹색교육센터는 녹색의 가치를 나누고 알리는 녹색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녹색교육은 사람과 자연의 평화로운 소통을 이어주며 생명과 평화, 다양성 존중 같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건강한 철학과 생활방식을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 삶에 대한 철학을 바꾸는 생활교육, 미래세대에게 녹색의 씨앗을 심는 희망교육, 체험과 문화로 엮어내는 통합교육, '다름'과 '소외'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하는 나눔교육, 지구촌 이웃 모두가 연대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한다. 미래세대 녹색지킴이 교육, 녹색시민교육, 녹색교사 양성, 녹색명상, 사회와 학교환경교육, 국제환경교육 같은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초록빛 내일을 열어가려한다.



전화 : 02-6497-4855~6 / 전송 : 02-6497-4920

www.greenedu.or.kr / 대표메일 : greenedu@greenkorea.org

■ 사단법인 녹색습지교육원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과 하구는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다. 습지는 홍수 조절, 수질 오염 정화, 기온 안정화 등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습지의 급속한 파괴와 황폐화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습지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현장 교육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녹색습지교육원은 더 이상의 습지 훼손을 막고 사람과 동물, 식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한다.



전화 : 02-6497-4850 / 전송 : 02-6497-4920

www.wetlandkorea.org

녹색연합 회원모임

녹색연합과 함께 하는 시민, 회원들이 녹색의 테두리 안에서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시민모임으로 녹색친구들, 야생동물소모임, 생명운동공부모임, 옛사람이 활동하고 있고, 회원모임은 베지투스, 씨앗, 구름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산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녹색친구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산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녹색연합 산악환경시민모임이다. 환경산행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산줄기 답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자연에 해를 덜 입히는 산행방법 개발과 교육을 진행한다. 달마다 정기산행과 환경산행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1년에 한번씩 '녹색환경 등산학교'를 진행한다.

홈페이지 : <http://greenfriends.hosting.paran.com/zbxe/>

※ 문의 : 성기철 011-9007-8848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야생동물소모임>

야소모는 '야생동물과 그 터전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단순한 야생동물보호와 관리가 아닌 동물의 권리와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노력한다. 정기탐사와 장기탐사를 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기교육, 야생동물전문가 초청을 통해 일반인들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홈페이지 : <http://www.yasomo.net> ※ 문의 : 박희복 010-4550-2569

자전거 모임 <구름>

두바퀴로 실천하는 환경 사랑 '구름'은 자전거 타기를 통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녹색연합 회원모임이다. 자전거 초보자를 위한 기초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하는 활동, 자전거를 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자전거 생태 여행, 자전거를 안전하고 자신있게 탈수 있도록 자전거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greenkurum>

※ 문의 : 정선옥 010-3905-1123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옛사람〉

옛사람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녹색연합 주부회원모임이다. 천연화장품만들기, 대안생리대만들기, 건강한 먹을거리 연구 같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전파한다.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 요리책을 발간하여 먹을거리를 통한 환경지킴이 활동을 홍보했다.

홈페이지 : <http://greenkorea.org/zb/zboard.php?id=greenmother>

문의 : 정미경 011-9916-6218



청년 모임 〈씨앗〉



녹색연합 청년모임 '씨앗'은 녹색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환경, 생태, 생명의 문제를 확산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다. 현장 강좌 '씨앗 나눔'을 통해 생태적인 삶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 나눈다. 생태농활 '뿌리내림'은 생명의 현장, 농촌과 소통하면서 생태 가치관과 자립하는 삶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을 한다.

홈페이지 : <http://club.cyworld.com/greenseed>

※ 문의 : 최승아 010-4277-4121

채식 모임 〈베지투스〉

음식문화는 인간 생존의 근본이 되는 행위이다. '베지투스'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채식을 지향하는 모임이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음식문화가 채식임을 알리고, 실천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녹색인의 삶을 실천이다.



홈페이지 : <http://club.cyworld.com/govegetus> 문의 : 조상우 017-728-3472

생명과 평화를 향한 성찰의 길 〈생명운동공부모임〉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명운동공부모임'은 21세기 대안사회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이자 실천과 행동을 준비하는 장이다.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함께 실천한다. 생명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할지 서로의 고민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

홈페이지 : <http://home.freechal.com/seangmyoung>

※ 문의 : 서경원 010-3124-9123

모임에 함께하실 분들은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 시민모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주제로 회원모임을 열고 싶은 분은 모임의 주제와 내용을 전자우편 greenkorea@greenkorea.org 로 보내주세요.

녹색 아시아를 위한 만원계

녹색아시아를 위한 만원계는 아시아의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심각한 환경파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도우며, 아시아의 파괴되는 환경을 막기 위해 함께 활동한다. 한 달에 만원씩 꾸준히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열 명이 모이면 하나의 나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르표범 만원계

아무르표범은 러시아 극동지방, 러시아-중국, 러시아-몽골 등의 국경지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서식지의 파괴와 밀렵으로 인해 그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현재 20여 마리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아무르표범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르표범 만원계는 달마다 기부금을 모아 현지 밀렵방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amurleopard.kr>

계좌 : 국민은행 두레계좌 055201-04-014598

계주 : 김동현 010-6899-3365



오랑우탄 만원계



오랑우탄은 석기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남부 아시아 전역에 수백만 마리가 살았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와 불법사육으로 인해 3만 마리 정도만이 인도네시아 부근의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에서 서식하고 있다. 오랑우탄 만원계에 기부하신 기금은 오랑우탄을 보호하는 현지 활동지원비로 사용되며, 현지 활동가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계좌 : 국민은행 037401-04-012381 / 예금주 장혜진(오랑우탄 만원계)

계주 : 장혜진 011-9500-6902

필리핀 만원계

과거 미군기지터가 있던 필리핀 클라크는 미군이 방류한 독극물로 인해 식수로 사용하는 강물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희귀병을 앓게 되었다. 필리핀 만원계는 지금까지도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금을 모으고 있다.



보팔 만원계



1984년 네팔 보팔에서 미국계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 화학비료공장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거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켰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스가 굳은 덩어리가 마을 곳곳에 남아 사람은 물론 삶터까지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팔 주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팔 만원계는 이러한 보팔 주민을 돕고자 의료영비, 마을 지원비를 위한 지원금을 모으고 있다.

연변 두만강 만원계

두만강 생태계는 관광개발사업과 보신관광으로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연변에 위치한 연변록색연합은 두만강변에 사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이들이 환경보전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변 두만강 만원계는 두만강에 남아 두만강과 삶을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활동을 돕고자 기금을 모으고 있다.



귀신고래 만원계



이 고래는 신출귀몰하게 도망을 간다고 해서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신고래는 최근 서식지인 사할린의 유전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뒤 지금은 지구에 1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귀신고래 만원계에 달마다 1만원씩 기부를 하면 사할린에 가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아닐지라도 재정을 지원하는 또 한명의 활동가가 될 수 있다.

포스터 최병수

녹색연합 활동가에게 2008년을 묻다



김명기

대운하부터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까지.
난 왜 녹색연합에 들어온 것일까?



김미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경이로운 세계로 몰입하다.”



유상진

끊임없는 고민의 나날들...



이신애

2mb and his crew로 인해 고달팠습니다.
2009년에는 좀 더 깨끗하게 유쾌하게
고달픔을 이겨내야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김제남

녹색활동가로 다시 돌아온 이 자리.
여~영~차



윤기돈

올해 초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대운하에,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다시 4대강 정비 사업에...
우린 그저 이전부터 녹색운동가였을 뿐이고!!!”



이석제

“녹색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소영

한걸음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유진

씨뿌리고, 씨뿌리고, 또 뿌리고.
녹색연합 에기팀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밭에 불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정인철

그대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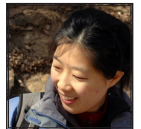
윤소영

편안함으로 시작한 1월의 백두대간 활동을
자유로운(?) 12월로 마무리하다!
했나? 할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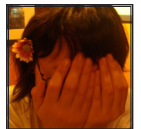
한상민

우리가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준 태안과 광화문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뿐



허승은

치열하고 찬란(?)했던
20대의 막을 내리며 가슴 찡던 한 해



문은정

나는 운동가일까?
내가 정말 운동가가 될 수 있을까?
두려운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한해.



고이지선

돌아오라 잔다르크



최승국

“길은 어둠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시간”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새삼 느껴가는 기간”



신은은

시도는 필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준 한 해!



김희정

Stumbling Toward Justice...



윤상훈

아쉬워도 흔쾌하게, 부족해도 자신 있게...



최수산

저울이 희망 쪽으로 기울도록 무게를 보냈을까?



전세이라

어느 날 갑자기 ‘녹색’ 이란 놈이 났겠다. (책임제)



최위환

녹색의 흙씨를 날려 보내려다
너무 무거워 날리지 못한 해였다.
의미있는 재미로 더욱 작고 낮고 가볍게.



박효경

비로소 점하나를 찍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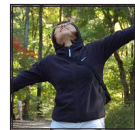
이선화

맨 몸으로 바람을 맞아 몸을 잔뜩 웅크렸던 해.
내년엔 펴야지 ...



서재철

현실과 미래의 긴장이 가장 약했던 한 해



노상은

“나를 찾아가는 길, 그 네 번째 관문”



황주란

우리가 거시적인 자연에서 얻는 신호는 대개 아날로그다
거스를 수 없는 생태적 삶의 대안인
녹색에서
아날로그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떠났던 한 해



황민혁

후다닥 뛰어 다니긴 했으나...
응아하고 뒤 닦지 않은 듯한 이 묘한...



신근정

아장아장 귀여운 아기에게
광우병 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어주려 고군분투~



손문정

강을 따라 걸었던 아직은 시린 3월로부터, 녹색을 더듬더듬.



배제선

뒤 돌아보아도 물러설 곳 없는
깜깜한 낭떠러지 뿐이다.
행복한 진보만이 있을 뿐.

녹색연합이 걸어온 길

1991년	6월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모임, 배달환경연구소 창립
1993년	3월	전국조직인 배달환경클럽 결성
1994년	4월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 (녹색당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모임, 배달환경연합)
1996년	4월	녹색연합으로 명칭 변경
	6월	〈도서출판〉 작은것이 아름답다 창립
	7월	인천녹색연합 창립
1997년	6월	부산녹색연합 창립
	10월	대전충남녹색연합 창립
1999년	5월	환경소송센터 창립
	12월	전주녹색연합 창립
	12월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결성
2000년	2월	청소년 모임 '아이지엘' 결성
	3월	시민모임 '야생동물소모임' 결성
	7월	광주전남녹색연합 창립
2001년	1월	시민모임 '늘푸른 청년모임' 결성
	3월	공주녹색연합 창립
	5월	회원모임 '녹색바람' 결성
	6월	시민모임 '생명운동 공부모임' 결성
2002년	1월	대구경북녹색연합 창립
2004년	12월	원주녹색연합 창립
	12월	회원모임 '옛사람' 결성
2005년	1월	1차 정기회원총회
2006년	2월	회원모임 '베지투스' 결성
2007년	1월	2차 정기회원총회
	2월	회원모임 '씨앗' 결성
	4월	회원모임 '자전거모임' 결성
	6월	(사) 녹색습지교육원 창립
	11월	녹색교육센터 창립

* 자세한 내용은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의 녹색연합 소개 / 활동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발간 보고서 목록

2007 울산삼척봉화 지역 산양서식실태조사 보고서

2008 녹색순례 자료집

2008 녹색연합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2008 밀렵방지캠페인 “야생의 눈으로 바라보기”

2008 섬환경캠프 자료집

2008 생태현장 나눔강좌 백서

2008 야생동물교육 길라잡이과정 자료집

건고싶은 서울,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걷기, 서울 성곽 순례길

도로의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 – 이제는 생태복원이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친구들 – 청소년 모니터링단

울진숲길 조성 연구 보고서

울진 금강소나무림 지역 숲길 조성 기본계획

전국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실태 보고서

한강하구 생태지도

DMZ 155마일을 걷다 – 2008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실태 보고서

LOCAL CO2 DIET

2008 녹색연합 연례보고서

펴낸이 박영신

펴낸곳 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www.greenkorea.org

전화 02-747-8500

편집한이 녹색연합 정책실, 자원활동가 문성진

펴낸날 2009년 2월

만든곳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www.jaga.or.kr

녹색연합 발간번호 : 01-09-02-02

이 보고서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무단 게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이 보고서의 표지와 본문종이는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녹색의 노래

Allegro Moderato

배달녹색연합 작사
안 정 준 작곡

mf

바 라 보 면 밤 하 늘 보 석 처 럼 빛 나 고
생 각 하 면 그 시 절 아 - 득 히 멀 - 고

돌 아 보 면 진 달 래 지 천 으 로 피 는 - 곳
찾 아 보 면 그 산 하 어 - 디 로 갔 - - 나

그 들 녀 그 하 늘 이 그 리 읍 거 - 든 내
그 - 때 그 산 천 이 그 리 읍 거 - 든 내

가 슴 에 생 명 나 무 씨 앓 을 심 - 자
가 슴 을 푸 른 물로 가 득 채 우 - 자

mf *cresc*

녹 - 색의 바람으로 다시 태 어 나 침 목 의 대 지 위 를 휘 물 아 가 세 아
온 - 누 리 맑 은 물로 모 두 합 쳐 저 삼 천 리 방 방 곡 곡 봇 물 터 저 라 아

아 - 우 리 들 노 래 는
아 - 우 리 들 노 래 는

생 명 의 깃 발 아 아 - 우
생 명 의 폭 포 아 아 - 우

Rall *f*

리 들 노 래 는 늘 푸 르 - 다
리 들 노 래 는 늘 푸 르 - 다



이 보고서의 표지와 본문종이는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